손안에 든 한 줄 구약성경

(말라기 4:1~6)

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3.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4.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5.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손안에 든 한 줄 구약성경>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손안에 든 한 줄 구약성경'

본문은 구약성경의 마지막 장으로써 구약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요약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마음의 구조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고작 두 가지 대상도 동시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담을 수 없다는 것은 생활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사람의 마음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마음이 진심으로 붙들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나머지 대상들은 첫 번째로 붙잡고 있는 대상을 수단으로 삼아 대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무사가 손에 잘 맞는 검 하나를 들고 모든 적과 상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의 대상을 붙잡을 수 있고 그 하나의 대상을 생활화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설령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라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생활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라기 4장은 구약 39권 안에 들어있는 모든 말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요약하여 우리 손안에 쥐어줍니다. 놀라운 은혜가 담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먼저 2절에서 공의로운 태양으로 비유되시는 예수님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모세가 언급되고 5절에서는 엘리야가 언급됩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언급되며 구약이 마무리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하나님 아버지가 구약성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분의 이름이 상징하는 바를 이해함을 통해 우리는 구약성경 전체를 손에 쥘 수 있고 생활화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공의로운 태양으로 비유되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조합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조합은 상당히 낯익은 광경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변화산 사건을 떠올리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태양처럼 빛나는 존재로 변형되셨습니다. 그리고 태양처럼 빛나는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십자가 사건에 대해 의논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30~31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바로 이 조합이 언급됨을 통해 구약과 앞으로 나타날 십자가 사건이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한 선지자의 역사는 세례 요한에서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다시 오신 엘리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엘리야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선민 사이에서 엘리야와 같은 영적 존재의미를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모세로부터 시작되어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지자의 역할은 선민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전체는 선민들의 타락상을 드러내며 이 역사가 실패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강력한 요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요청과 함께 마무리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라는 인물이 상징하는 영적 의미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모세와 엘리야로 대변되는 선지자의 역사는 선민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선지자가 있었으나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가 언급된 이유는 그 상징성에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사건의 장본인으로써 해방을 상징합니다. 엘리야는 살아서 불 말과 불 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로써 승천을 상징합니다. 엘리야가 살아서 승천한 것처럼 우리 또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로 마음을 보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모세와 같이 땅으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함을 의미합니다. 해방과 승천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땅에서의 해방이고 땅을 등치고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 승천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로 상징되는 땅으로부터의 해방의 역사가 실패했음을 보여줍니다. 선민의 역사 속에서 시기나 지도자에 따라 영적 상태의 차이는 있었지만 결국 선민들은 땅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에 실패하였습니다. 마음이 끝내 땅에 묶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음이 땅의 노예가 되었기에 땅을 등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 또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실패의 역사는 메시아 등장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집니다. 즉 구약성경은 해방과 승천을 이루시기 위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강한 열망을 극대화시키며 끝이 납니다.
구세주로 번역되는 메시아는 우리를 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져야 하는 해방과 승천의 성취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잘 살고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터무니없는 생각에 불과합니다. 마음이 땅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늘로 승천하게 되면 운명적으로 하늘에서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발견하는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땅을 떠나고자 안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이 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멋지고 훌륭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결코 복음이 되실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구미에서 말씀을 들으시던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해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특별히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오르심에 대해 알게 된 것이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부활까지도 가끔 언급을 합니다. 다만 예수님의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오르심까지 생활화하자는 말은 처음 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분께서 십자가 복음을 접하신 경험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십자가 복음이 낯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땅을 떠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땅을 사랑하는 동안에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예수님의 길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땅을 사랑하기에 십자가 사건을 통한 죄 사함만 기억하고 해방과 승천의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죄 사함을 받았다면 땅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승천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려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좋아하는 땅을 떠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찾아올 때에야 마지못해 땅을 떠나 천국으로 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시 본문을 생각해보자면 모세는 땅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로 승천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땅에서 해방되어 하늘로 승천해야 한다는 것이 구약성경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루어진 시도는 결국 실패하였고 그리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등장에 대한 강한 요청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

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출애굽으로 상징되는 땅으로부터의 해방과 엘리야가 불 말과 불 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으로 상징되는 마음의 승천을 성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오실 것임을 예언하는 것이 구약성경 39권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이 내용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이유는 바로 해방과 승천을 위해서입니다.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광선으로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날개를 뜻합니다. 날개는 땅을 떠나서 하늘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해방과 승천은 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에 달렸습니다. 모세가 구리 뱀 장대를 높이 들었을 때에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자주 예로 들었던 "오 솔레미오"의 비유를 다시 생각해봅니다. 세상에는 35억 명이나 되는 여자가 존재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남자에게는 오직 한 여자만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향해 "오 나의 태양이여!"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님을 향해 "오 나의 태양이시여! 내게는 십자가에 달려죽으신 당신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의로운 해로 상징된 예수님에 의해 우리의 마음은 의롭게 됩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움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불의에 대해서도 생각해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공의로운 태양이시라면 세상의 대상들은 우리를 불의하게 하는 태양입니다. 내 마음에서 "오 나의 태양이여"라고 고백하는 대상이 돈이라면 어떨까요? 돈이라는 불의한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한 마음은 결코 땅에서 해방 될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해 승천할 수도 없습니다. 자녀 또한 불의한 태양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마음에 붙잡고 생각하고 말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은 불의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치료하는 광선은 직역하면 치료하는 날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날개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치료가 나

타나게 됩니다. 질병은 영어로 디스오더(disorder)입니다. 질서가 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신체의 질서가 깨지면 질병에 걸리고 삶에 질서가 깨지면 불안이 생겨납니다.
이와 반대로 삶 전반이 건강한 상태를 대표하는 말이 있다면 평강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샬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강이 깨어진 이유는 내 마음이 예수님의 날개에 올라타서 하나님께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육체에 속한 삶 또한 허물어지지 않는 평강 가운데 진행되게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물리적으로 성공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몸에 병이 안 걸리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말뚝이 박힌 것 같은 고통을 죽을 때까지 가진 채 살았습니다. 진정한 치료란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깨지지 않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공의로운 태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은 날개에 올라타서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이 세상에 대한 나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공의로우신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날개가 되어주십니다. 그 날개 위에 올라타서 하나님께로 가면 마음에는 진정한 기쁨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어두운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푸른 초장에서 깡충깡충 뛰면서 좋아하는 것처럼 되리라는 것입니다.

한편 1절을 보면 교만과 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태양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은 이 세상의 대상들을 태양으로 삼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부모가 어여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교만이고 악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지푸라기가 불에 타듯이 괴로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몸을 바치더라도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일이라면 교만이고 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죄인으로써 내가 이 세상에 대해 가져야 할 유일한 옳음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하는 것만이 죄인인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옳음입니다. 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옳은 일은 내가 나서서 관여하고 손대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향해 “오 나의 태양이시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태양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에 생겨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은 교만이고 악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지푸라기처럼 불타 없어질 형벌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태양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상징하는 땅으로부터의 해방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에 엘리야가 상징하는 승천을 이루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서의 삶 또한 치료되어 밝은 태양아래 푸른 초장에서 기뻐 뛰는 송아지와 같은 주인공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손 안에 들어온 한 줄 구약성경은 바로 예수님, 모세, 엘리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구약 39권에서 귀하지 않은 말씀이 없지만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하나님 아버지로 요약되는 의미의 반복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토록 예수님의 오심을 강하게 요청하는 구약성경의 마지막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향해 “오 나의 태양이시여!”라는 고백을 함으로써 날개를 달고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고 이 땅의 삶이 온전히 치유되는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